

# 항일 독립 투쟁 아픈 역사 되새기며 아베정권 규탄

■광주·전남 곳곳 광복절 기념행사  
 광주공원 신동욱 사적비 제막식  
 송정역 시민들에 태극기 나눠줘  
 광주시·서·남·광산구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목포 日정부 규탄 촛불 문화제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광주·전남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기리고 해방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와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행사도 곳곳에서 진행됐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광주 남구 광주공원에서 항일 독립투쟁에 나선 의병들을 몰심양면으로 돕고 조국 광복에 앞장선 심사(心史) 신동욱(1870~1942) 선생의 사적비 제막식을 열었다. 이 사적비에는 선생의 좌우명 '불기심(不欺心·마음을 속이지 않는다)'과 함께 임형택 성군관대 명예교수

가 짓고 서예가 학정 이돈흥이 붓으로 옮긴 비문이 새겨졌다. 심사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독립 자금을 모으고 의병장 심남일·김태원·전해산 등과 교류하면서 군량미,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등 의병 활동을 도왔다. 광주 광산구 송정역에서는 광복절을 기념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 주기도 했다. 광주 곳곳에 설치된 소녀의 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행사가 이어졌다. 광주시는 이날 청사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

사'를 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1991년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백희정 광주나비 대표 등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 개회, 인사말씀, 학생 대표 등의 발언, 헌화 순으로 행사는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한·일 긴장 국면 속에서도 일본인 12명으로 구성된 '한국에서 배우는 역사기행단'이 광주나비 초청으로 참석,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함께 기렸다.

광주 서구도 이날 청사 앞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행사는 광주 남구, 광산구 앞에 있는 소녀의 상 앞에서도 진행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행사도 치러졌다. 광주 북구 전남대 정문에서 북구청 광장 소녀상을 거쳐 전남대 후문까지 약 1km 구간에 인간 띠를 만들며 친일적폐 청산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염원하는 '평화 인간 띠

잇기' 행사가 열렸다. 북구평화인간띠 잇기 추진위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시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 목포에서는 일제 강점기 수탈 현장인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목포군 대역사관 2관) 앞에서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 목포시민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광주시는 15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거행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광복회원), 시민, 각급 기관·단체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4일 오전 광주 서구청 앞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한 시민이 소녀상 옆에 국화를 헌화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문 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최선 다하겠다”

“보편적 관점에서 국제사회 공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 인권에 대한 메시지로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는 것은 28년 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했기 때문”이라며 “그날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할머니의 용기에 힘입어 슬픔과 고통을 세상에 드러낸 할머니들께서는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으셨다”면서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해 연대하는 인권운동가가 되었고 오늘 1천400회를 맞는 수요집회를 이끌며 국민과 함께하셨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면서 “할머니들이 계셔서 우리도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해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셨던 수많은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할머니들의 희망이 이어 나가는 것”이라며 “오늘 기림의 날, 항상 슬픔이 희망으로 승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이날은 2012년 아시아연대회의에 의해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전국 17개 시도의회 “日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 추진”

광주시의회 내달 임시회 처리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방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20여명은 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 물품에서만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취지를 설명했다.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

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권고사항으로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이미 이달 초 서울시의회와 세종시의회에서 발의됐으며, 광주·울산·부산시의회 등에서도 발의가 추진 중이다.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및 공공 구매 제한 조례안’ 발의에 23명의 시의원 모두가 이름을 올렸으며, 다음달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광주시,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사무처, 공사·공단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시와 시 산하기관은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이나 공공 구매를 할 수 없고 보유사

유 중인 제품에 전범 기업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의회별로 일정에 차이가 있지만 9~10월이면 (조례 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정 국가 기업의 공공구매 제한이 국가 간 차별을 금지한 WTO(세계 무역기구)의 조달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조례 대상 공공구매 금액을 조달협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가 적용되는 금액 미만으로 제한해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는 입장이다. 또한 강행 규정이 아니라 권고·훈시적 규정인 만큼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요즘 더 보고 싶구나, 日 반출 지고의 걸작



김은영의  
 ‘그림 생각’

(278) 몽유도원도

최근 문화재청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약 18만2천 여 점이라고 한다. 일본, 미국, 독일, 중국 등 21개국에 걸쳐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흩어져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인 7만6천 여 점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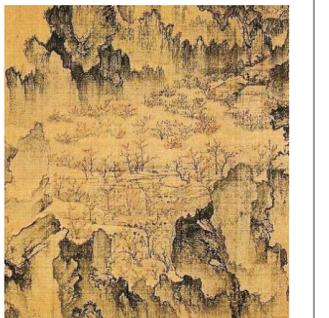
오래전 왜구의 침략부터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까지 아픈 역사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문화재가 약탈되었거나 유출되었음은 짐작이 가는 일이지만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니 언제쯤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안타까

움이 더 한다.

일본 속 우리 문화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누구라도 안견(1400? ~1479?)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1447년 작)를 꼽을 것 같다. 10년 전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에 7일 동안 전시된 ‘몽유도원도’를 관람하기 위해 서너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렸던 기억도 생생하다.

오늘날까지 전하는 조선의 옛 그림 가운데 가장 귀한 작품으로 알려진 지고의 걸작이 일찍이 일본으로 반출되어 정작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다는 사실이 통탄스럽기도 했다. 더구나 요즘처럼 한·일 관계가 골진 같듯이 깊어질수록 국력을 기르는 수밖에 해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몽유도원도는 세종대왕의 셋째아들 안평대군이 어느 여름날 밤 ‘꿈속에서 노닐었던 도원’을 도화원의 화가 안견이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에는 안평대군의 제목 글씨와 제시에 이어 당대를 주름잡



안견 작 ‘몽유도원도’

던 명사들의 찬사와 찬문이 한데 모여 20미터에 이른다.

이미지는 ‘몽유도원도’를 막 펼치면 나타나는 북송나무가 안개 속에 그윽하게 펼쳐져 곁길 같은 이상향인 무릉도원이 황홀하게 묘사되어 있다. 무릉도원을 지니면 기암절벽을 넘고 깊은 골짜기를 건너 평탄한 현실경으로 돌아오면서 꿈이 막 깨려는 순간까지 장대한 한 편의 파노라마에 담겨 아름답기 그지없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 노안수술 받으면

## 돋보기 없이

###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